

ALC시장 불황탈출 모색

95년 생산 30.4% 급감 ... 설계기준 · 표준공법 통일 추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ALC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경량기포콘크리트) 생산기업들이 공동으로 타개책 마련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입초기 ALC는 경량성 및 단열성, 내화성, 제품시공성 등에서 우수한 물성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견됐으나, 제품에 대한 홍보부족, 설계 및 표준공법의 부재로 아직 국내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95년 생산량도 32만㎡로 94년 46만㎡에 비해 30.4%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ALC 생산 및 가동률(1995.1~9)						
(단위 : m ² , %)						
구 분	생산능력	생 산 량			가동률	
		Block	Panel	합 계		
금 강	300,000	8,200	1,800	10,000	3.3	
기 린 산 업	150,000	23,005	-	23,005	15.3	
벽 산	150,000	26,325	1,550	27,875	18.6	
삼 익	175,000	34,990	50	35,040	20.0	
선 경 건 설	130,000	35,720	5,505	41,225	31.7	
신 라 교 역	100,000	22,200	-	22,200	22.2	
쌍 용 양 회	200,000	33,550	3,530	37,080	18.5	
한국시포렉스	200,000	46,400	7,470	53,870	26.9	
합 계	1,405,000	230,390	19,905	250,295	17.8	

각 생산기업들의 95년 3/4분기까지의 가동률도 선경건설이 가장 높은 31.7%에 그친 것을 비롯 한국시포렉스 26.9%, 신라교역 22.2%, 삼익 20.0%, 벽산 18.6%, 쌍용양회 18.5%, 기린산업 15.3%, 금강 3.3%로 평균 17.8%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금강은 95년 1/4분기 이후 ALC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세는 주택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ALC 수요량의 감소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요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ALC구조설계와 표준공법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건축 설계업자와 시공업자가 사용을 기피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생산기업들은 각각의 기술제휴선에 따라 다른 설계와 건축공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시포렉스는 스웨덴 시포렉스와, 선경건설은 독일 Yton, 쌍용양회는 독일 Hebel 등과 기술제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국ALC협회에서는 94년 하반기부터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ALC사용 표준화와 규격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96년 2월말경 「ALC구조설계기준 및 표준공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과로 1995년 12월30일자로 개정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3항1호에서는 ALC가 「고온고압 중 기양생된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 또는 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법정내화성능을 가진 자재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에 건축주들이 ALC사용시 국립건설시험소 검사후야 시공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제거되는 등 ALC 수요확대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ALC협회에서는 일본, 유럽과 같이 ALC사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96년 시장회생의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생산기업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연구세미나 개최를 계획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병행하고 있다.

